

조건없는 사랑만이 지옥에서 해방



불화 속의 명장면 (27)

지옥세계(地獄) : 日 교토 지은원소장 '지장보살본원경변상도'

회영청 푸른 달과 그 주변을 가득 수놓은 금강석 별들이 영롱히 비치는 해인삼매(海印三昧)의 바다가 아니라, 분노로 활활 끓어오르는 불바다이다/ 보드라운 승결과도 같은 금은(金銀) 모래사장이 아니라, 날카로운 갑날 뱀뱀이 돌친 칠산이다/ 잿빛 번뇌를 씻어버리는 청량한 미풍(微風)이 아니라, 뜨거운 쇳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불길이다/ 무지개빛 극락조의 천상의 운율이 아니라, 살려달 라 울부짖는 절규의 아우성이다/ 따스한 봄 날씨 같은 관음의 자비의 손길도 아니라, 엄라대왕의 냉혹한 죽음의 판결이다/ 성불(成佛)로의 길 밝히는 구원의 등불이 아니라, 철혹 같은 암흑 속 번득이는 야차의 어금니다/ 산호 수정 진주 아름답매의 칠보나무 울타리가 아니라, 몸이 쇠로 된 백과 개가 불을 토하며 중환무진 내달는 천길 쇠장막이다/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달래는 청량 감로수(甘露水)가 아니라, 영검토록 뜨거운 철환을 삼키고 뜨거운 구릿빛물을 마셔야한다/ 금빛잔연 눈부신 아미타의 무량광(無量光)이 아니라, 적의와 증오로 이글거리는 화랑(鑊湯)지옥 검은 연기이다/ 비상할 것만 같은 벼차오르는 환희심이 아니라, 천근 무게의 몸을 끌고 가도 가도 끊이 없는 흑암(黑闇) 미로이다/ 삼라만상 영롱히 밝히는 불성(佛性)의 인드라 망(網)이 아니라, 움푹잡작 조여드는 철수갑 철사슬이다.



그림3 : 말로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발설(拔舌)지옥

태의 미계(迷界)가 바로 우리의 현주소, 차안(此岸)이라면, 이 육도윤회의 상태를 벗어나 생사(生死)를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가 피안(彼岸)이다. 그런데 이 경지는 생사를 '초월'한 경지라기보다, 생사에 '초연'한 경지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태어난다면 누구나 다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삶의 많은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생은 매번 당혹스럽다.

이러한 혼돈스런 차안에서 피안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불도수행(佛道修行)이고, 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혹스러워하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사는 목표와 방법을 제시한다. 즉 '인생(人生)'이란 곧 피안을 지향하는 '수행(修行)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란 이러한 수행을 위한 '교육'이다. 또 부처님은, '삼계도사(三界導師) 사생자부(四生慈父) 시아본사(是我本師) 쇠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란 예불문 문구 그대로, 미혹한 삼계의 중생을 이끄는 스승(三界導師), 우리의 위대한 스승(是我本師), 즉 우리를 지도하는 대교육자(The Great Teacher)가 된다.

각양각색의 상태에 있는 중생의 다양한 소원과 바람을 들어주고 또 이들을 이끌어 지도하고 구제하기위해, 많은 어려와 보살들이 방편(方便)의 묘(妙)를 살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출현하여, 불교의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한다. 그런데 부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제불능의 장소가 있다. 지옥이다.

'지옥(地獄)'은 산스크리트어 '나라카(Naraka)'를 의역한 말인데, 이를 음역하면 '나라'이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보통 '나라에 떨어지다', '나라에 빠지다'라고 말한다. <지장보살본원경>에



그림1

는 나라 즉 지옥에 떨어지면 수천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한다. 극락(極樂)의 반대인 극고(極苦)의 장소. 이 지옥의 묘사가 매우 생생하게 펼쳐지는 <왕생요집>일본 헤이안시대 승려 원산(源信)이 찬술한 것으로, 일본 정토교 형성의 초석이 된 경전에는 지옥에 대한 구체는 일체 설명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 나라 속의 영혼들에게도 희망은

수많은 지옥 중에서도 무간지옥은 지옥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무간지옥(혹은 아비지옥, 아비는 산스크리트어 Avici의 음역)은 '무간(無間)'이라는 뜻대로 '사이가 없다' '끊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밤낮으로 받는 벌이 영겁토록 끊이지 않으므로'·'죄경전에는 지옥에 대한 구체는 일체 설명되어 있지 않다'·'백천 겁에 이르도록 하루낮 하룻밤 만 번 죽고 또

부처님의 손길 닿지 않는 구제불능의 장소 인간이 저지른 끊임없는 악업 때문에 계속 늘어 구업사계 지키지 않는 사람 '발설지옥' 벌 받아

있다. 지장보살이 성불마저 포기하고 세운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대본願(大本願)이다. 이 지장보살에게 부처님은 자신 대신에 '가없는 몸을 지옥에 나타내어 지옥문을 부수고 그곳의 중생을 천상에 태어나게 하라'고 부촉한다.

인간이 저지른 끊임없는 악업에 따라 우후죽순식으로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지옥이기에 지옥의 수는 없다고 한다.

만 번 살아 잠시의 쉼 사이도 없으므로(자장본원경)', 이를 무간지옥이라고 일컫는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 속인 것이다.

고통이 극에 달한 죄인들이 끊임없이 울부짖는 곳을 규환(叫喚)지옥이라 하는데, 이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합하여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지옥들은 <구사론>(인도 세친 저술, 4세기경, 대승 및 소승불교의 기초화 제공하는 귀중문 문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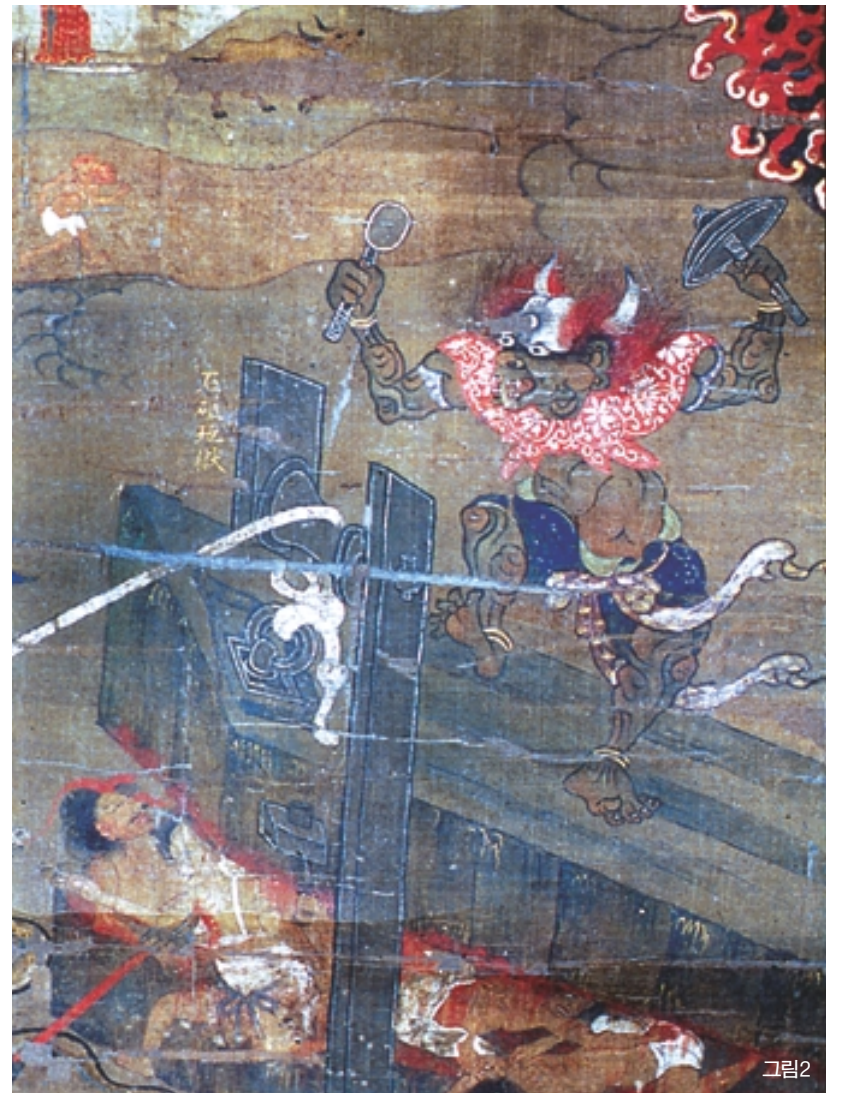


그림2

그림1·2 :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한 이들이 가는 중합(衆合)지옥, 일본 교토 지은원소장 '지장보살본원경변상도'의 부분

서 팔열(八熱)지옥 속에 포함되기도 한다. <구사론>에는 주로 팔열지옥과 이에 대응되는 팔한(八寒)지옥의 종류가 설명되어 있다. 그 외, 고독(孤獨)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산, 들판, 허공 등에 시와 때가 없이 지은 업에 따라 존재하는 소지옥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바로 이 고독지옥에 갇혀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장시왕탱 또는 시왕탱의 하단에서 자주 발견하는 지옥으로, 우선

발설(拔舌)지옥이 있다.(그림

3) 이는 죄인의 혀를 뽑

아소가 그 위에서 쟁

기를 끌도록 하여

발갈듯 혀를 가는

고통을 주는 지

옥이다. 이구

입(口業) 즉 말로

지은 업장이 두

터운 이가 받는 벌

인데, '이간하는 두

가지 말을 말라· 망

령된 거짓말을 하지 말

라· 절대 남에게 추악한 언

사를 쓰지 말라· 절대 남에게 가식

있는 말을 말라'의 구업사계(口業四戒)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받는 벌이다. 가장

히 또 쉽게 일상적으로 저질러지는 업이기

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화

랑(鑊湯)지옥의 역시 자주 눈에 띄는데, 죄

인을 철장에 꿰어 불가마솥에 넣어 찔찔 끓

이는 장면이다.(그림4) 주로 파계한 이들이

받는 고통이다. 또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한

사람들은 철산 사이에 가두어 놓고 불려 압

사시키는 형벌을 받는데, 이는 협산(夾山)

또는 중합(衆合)지옥의 광경이다.(그림1,2)

그 외에도 죄인의 온몸에 못을 박는

정철(釘鐵)지옥, 나무에 죄인

을 묶고 뜰로 몸을 찌

는 거해(鐵解)지옥, 칼

산에 갇히는 도산

(刀山) 또는 검수

(劍樹)지옥, 차디

찬 얼음산의 한

빙(寒水)지옥 등

이 있는데, 이러

한 고통에서 중생

을 자유케 할 수 있

는 것은 지장보살의

무차별적이고도 무조건

적인 사랑, 대지(大地)를 품는

우유체 할 수 있다.

강소연(미술사학자·홍익대 겸임교수)



그림4 : 파계한 이들이 가는 화랑(鑊湯)지옥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6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63호

고무신코 만행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세계질 단화 **말사 단화**

지압식 깔창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색상 : 회색, 검정

초극세사 **발볼조절 가능** **건강솔리퍼**

• 가격 : 50,000원 • 가격 : 50,000원 • 가격 : 50,000원
• 규격 : 215~285mm • 규격 : 230~280mm(10mm단위) • 규격 : 215~290mm
• 색상 : 검정, 회색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인)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운경승복 064)724-7999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 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명당옥방이 주면 공이 바뀝니다 명당옥방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옥방(051)865-9933

전도재 49재와 결원의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옥방은 각 시찰 임차 철학관에 있습니다.

책당여리 북당여리 함금당여리 책기막힌 북이틀여리 함금당으로 변합니다.

책기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재운으로 변화여 좋아지게 됩니다. 저마다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책기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좌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 문인 기정지,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책기 바뀔수록 좋은 운으로 변화여 하시는 일들이 좌됩니다.

◆ 관제나 산제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인연이 없는분. 사주가 인운이신 분들은 명당옥방 처방기초 처방을 해보십시오.